

특허 침해 칼 빼든 서울반도체 글로벌 기업 상대로 99전 99승

특허소송 '전승행진'

LED(발광다이오드)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코스닥시장 상장사 서울반도체가 유럽 대형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LED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를 침해한 유럽 스마트본 브랜드 A사 제품에는 전량 회수(리콜) 및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특허소송 승리로 서울반도체는 2003년 이후 99차례 소송에서 모두 이기는 기록도 세웠다.

서울반도체는 유럽 4위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독일 콘라트일렉트로닉을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15일 밝혔다. 독일 만하임지방법원은 콘라트일렉트로닉에 특허를 침해한 스마트폰의 판매를 멈추고 전량 회수하라고 판결했다. 만하임법원은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부품은 스마트본용 플래시 LED다. 이 부품은 빛을 더 밝게 구현하는 서울반도체의 독자적인 LED 광추출 기술이 적용됐다. 서울반도체는 5년 전 이 기술에 대해 독일에서 제 1회 특허를 취득했다.

이번 특허 소송에서 이기면서 서울반도체와 자회사 서울바이오시스는 2003년 이후 99차례 소송에서 100% 승리하는 기록을 세웠다. 임진애란 당시 이순신 장군처럼 특허 소송전에서 '전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지난 5월에도 네덜란드 무역회사 FTHMM을 상대로 한 특허 소송에서 이겼다.

최근 4년간 유럽 내 판매금지 및 제품

서울반도체 서울바이오시스 주요 특허 승소	
2019년	필립스 TV 일부 모델 영구 판매금지
2020년	파이트 특허 침해 전구 영구 판매금지
2021년	파츠아이드 특허 침해 제품 영구 판매금지
2022년 5월	무역회사 FTHMM 특허 침해 제품 즉시 폐기
8월	콘라트일렉트로닉 특허 침해 제품 영구 판매금지



서울반도체 와이캡이 적용된 자동차 헤드램프

최근 4년간 판매금지 판결만 7건 독 유통사 상대 소송서 승소 스마트폰 업체는 제품 전량 회수

20년 동안 1조원 기술 투자 "부품 하나만 특허 침해해도 완제품 전체 판매 못해"

회수 판결을 받은 것만 7건이다. 4월에는 미국 플로리다연방법원이 서울바이오시스의 LED 특허를 침해한 가전제품에 영구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LED가 광원으로서 존재감을 키우기면서 특허소송 대상도 조명, 생활가전, 스마트폰, 자동차 등 전방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LED 기술이 진화하면서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LED가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레즈와 와이캡이 좋은 예다. 서울바이오시스가 개발한 자외선(UV) LED 기술인 바이오레즈는 살균 성능을 인정받으면서 한국 미국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 가전기업의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와이캡은 중간 기판 없이 LED 칩을 인쇄 회로기판에 바로 연결하는 기술로 최근 인기 있는 미니 LED TV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이런 혁신 기술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조명 가전 자동차 등 다양한 제품에 빠지지 않고 적용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세계 3위 LED 기업으로 20여 년 동안 연구 개발(R&D)에 1조원 넘게 투자해 핵심 특허 1만8000여 개를 확보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제조사뿐 아니라 유통사도 완제품에 사용된 부품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특허 침해 시도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근 기자

"비대면 진료앱 많지만 허가 2개뿐... 기준 정비해야"

송승재 벤처기업협회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장

"코로나19 사태 이후 많은 비대면 진료 앱이 개발됐지만 정식 의료기기 허가를 거친 앱은 두 개뿐입니다. 의료인과 환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송승재 벤처기업협회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장(사진)은 지난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비대면 진료 활성화에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송 위원장은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라이프시멘틱스 대표다. 라이프시멘틱스는 비대면 플랫폼 닥터콜을 활용해 2020년 6월 제1회 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

스мп시허가를 받았다.

그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 범위 등을 정한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아쉬움을 표했다. 송 위원장은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적절한 제도과 규제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기준이 잘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 행정조치가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원격진료를 할 때 의사가 사용하는 서비스와 제품은 의료기기로 규정돼 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도 의료기기 허가가 필요하다. 송 위원장은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

공하면 불법 진료가 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디지털헬스케어보건의료데이터 진흥 및 촉진법안도 마련하고 있다. 그는 "기업이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금융 마이데이터처럼 데이터 취급자의 보안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송 위원장은 팬데믹 이후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에 혁신적 변화가 많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 국민이 비대면 진료에 기반 의료체계의 조력자로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비대면 진료 등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면서 자연히 시장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현희 기자



규제로 이용자 '뚝'... 살 길 찾는 공유킥보드

M&A-사업전환으로 위기 돌파
자바이크, GUGU킥보드 인수



지난 6월 한국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라임의 공유 킥보드가 거리에 세워져 있다.

공유 킥보드 회사들이 인수합병(M&A)과 사업 전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범 규제로 어려움을 겪자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유 킥보드 서비스 자쿠터를 운영하는 자바이크는 GUGU킥보드 사업을 인수한다고 15일 밝혔다. GUGU킥보드는 경기 성남시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킥보드 서비스로, 지난해 5월 전동 킥보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자바이크는 지난달 현대자동차의 공유형 퍼스널모빌리티(PM) 사업인 ZET 서비스를 사들이기도 했다.

국내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유 킥보드 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면허를 취득하고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인도 운행도 금지됐다. 자전거도로가 없을 땐 차도로 다녀야 한다. 규제 시행 이후 공유 킥보드 이용자는 50%가량 급감했다. 킥보드 사고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여론이 악화된 것도

업체들엔 부담이다.

지난 6월 미국에 본사를 둔 라임은 한국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지난해 10월엔 독일 윈드가 한국 사업 철수를 공식 발표했고, 12월엔 싱가포르 기업 뉴런모빌리티가 한국 서비스를 중단했다. 공유 킥보드 스타트업인 스웁의 김형산 대표는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이익을 못 내는 한계기업은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며 "일종의 옥석 가리기가 진행 중이라고 본다"고 했다.

사업 전환을 추진하는 곳도 있다. 2019년 공유 킥보드 서비스를 시작한 디어는 화물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킥보

드 서비스로 쌓은 SaaS 노하우를 활용해 미들마일(중간물류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디어는 최근 신설한 화물솔루션 사업부 주도로 업무 자동화 도구인 캐리를 올해 말 출시할 예정이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공유 킥보드 서비스를 시작한 킥고잉은 지난달 전기자전거 서비스를 출시했다. 앱을 통해 킥보드와 자전거를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전기자전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삼천리자전거에서 40억원을 투자받았다.

규제가 탈한 국가로 진출한 사례도 있다. 스웁은 지난달 일본 도쿄에 진출했다. 이달 말까지 도쿄에서 공유 킥보드 1500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고은이 기자

"3만 시간 써도 거뜰... 헤어드라이어 새바람 일으켰죠"

▶ 으뜸종기

"기존 헤어드라이어 모터보다 수명이 20배 이상 긴 BLDC(브러시리스) 모터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수명이 3만 시간이라 지금 켜 놓으면 3년 뒤에도 작동하는 셈이죠."

헤어드라이어 전문 제조기업 한일전자의 오정현 대표(사진)는 회사 대표 제품인 '스마트 V30'에 대해 지난 12일 이같이 설명했다.

한일전자는 1978년 설립된 강소기업이다. 오 대표는 중학교를 졸업한 뒤 가전 조립 공장에서 일하다 24세 때 사업을 시작했다. 제품 특허와 상표권을 40여 건 보유한 한일전자는 1991년 탈모 치료에 도움을 주는 원적외선 헤어드라이어를 개발하는 등 100종 이상의 드라이어를 선보였다. 하지만 연간 매출은 50억원 선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일전자 대표상품 '스마트 V30' 온라인 판로 늘려 실적 급증

정체기에 접어든 회사의 성장을 견인한 것은 BLDC 모터가 장착된 신제품 드라이어 V30과 온라인 판매 강화였다. V30은 모터 내부 마찰이 적은 영구자석이 내장돼 강력한 바람을 만들어 낸다. V30의 강력한 바람은 골프공을 들어올릴 정도다.

또 헤어드라이어의 잦은 고장 원인

중 하나인 점접 불량과 전선 꼬임으로 인한 단선 사고를 막기 위해 90여 가닥의 가는다란 철사로 제조된 전선을 사용했다. 이처럼 우수한 제품을 개발했음에도 매출은 크게 늘지 않았다. 전통 시장 좌판에 주로 깔려 판매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 대표는 2017년 온라인 판매와 영업을 강화했다. 온라인 마케팅에 능한 20대 직원을 대거 채용했다. 2019년 48억원이던 매출은 작년 77억원으로 1.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영업이익률도 같은 기간 두 배 가까이 뛰어 현재 8%대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인도네시아 등 15개국 수출길도 열었다.

오 대표는 "현재 제품보다 바빠 세기가 40% 이상 강력한 신제품을 개발하는 한편 한국 헤어드라이어 1등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자리를 굳히고 싶다"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

롯데정밀화학, 환경분야 中企 ESG 경영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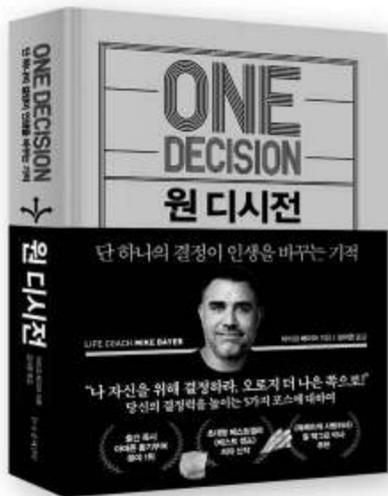
롯데정밀화학과 인천항만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최근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동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ESG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ESG 오픈이노베이션은 공공기관과 대기

업 네트워크를 앞세운 동반성장 협업사업이다. 우수 중소기업 기술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확산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입주한 130여 곳의 환경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안 공모를 할 예정이다. 강경민 기자

"나 자신을 위해 결정하라! 오로지 더 나은 쪽으로!"

세계적인 인생 코치가 던지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비결 인생 결정력을 높이는 5가지 포스의 모든 것!



원 디시전(One Decision)이란?

'하나의 결정'이라는 뜻으로 자아가 내면에서 진정한 자신이 되어 내리는 인생의 해결책이나 결단을 말한다. 우리는 나 자신이 되었을 때 최고의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준다.

단 하나의 결정이 인생을 바꾸는 가격 원 디시전
마이크 베이어 지음 | 김아영 옮김 | 값 18,000원 | 한국경제신문

서산공립기후 도시개발사업지구 보상계획 공고

충청남도 고시 제2022-26호(2022.01.13)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승인고시된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531번지 일원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지경물건 등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6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지경물건조사 등의 열람을 요청하오니,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서산 공립지구 도시개발사업
나. 사업지: 서산 공립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다. 위치: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531번지 일원
라. 면적: 200,639㎡
마.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 ~ 총지체완료일
- 2. 보상대상 물건포서의 내용
가. 충청남도 고시 제2022-26호(2022.01.13)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531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 물건 및 권리일체
나. 물건조사: 열람기간 중 열람청소에 비추어(조합사무실)
-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장소: 충남 서산시 예천동 29-17, 1번(현충동) 서산공립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나. 열람기간: 2022. 08. 16~2022. 08. 31(10:00~17:00 / 토·일 제외)
다. 이의신청: 열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사업시행지침 조합으로 제출
- 4. 보상시기: '개발계획(협의안)' 후 보상 가능
-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충청남도 고시 제2022-26호(2022.01.13)로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설치된 지경물건은 손실 보상대상에서 제외
나. 개인별 보상대상 물건내역, 보상금, 보상협의기간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안내서와 함께 추후 개별 통지 예정
- 6. 기타사항
가. 이 공고에 대한 서면 내용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였으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공고로서 알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공립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041-666-09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8. 16.
서산공립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